

"114위 서브 맛을 봐라"

등록 2026.06.04 07:57:35



[파리=AP/뉴스시스] 마야 흐발린스카(114위·폴란드)가 3일(현지 시간) 프랑스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안나 칼린스카야(24위·러시아)와 경기하고 있다. 예선을 거쳐 올라온 흐발린스카가 2-0((7-6 6-3)으로 승리하고 4강에 올라 디아나 슈나이더(23위·러시아)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. 2026.06.04.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